

윤달

“표이장·수의장만 하자” 장례업계 웃고 “경사스러운 일 피하자” 웨딩업계 운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윤달로 인해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윤달에는 경사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풍속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는 반면, 낯을 벗고 웃을 때도 달이 없다면 묘 이장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윤달 기간 묘 이장, 수의 장만 늘어=장례업계는 대목을 맞았다. 묘 이장이나 수의 구입 문의가 평소보다 대폭 늘었다.

묘지관리업체인 남도묘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문의전화량이 평소보다 20~30건이 더 많다”며 “윤달 기간 동안 묘 이장 예약도 이미 다 찼다”

고 말했다. ‘윤달에 수의를 장만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 때문에 수의업체도 윤달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박영란 우리웃 시장은 “원래 윤달에는 평소보다 주문이 2~3배는 많다”며 “경기 불황에다 상조회사 가입으로 개인적으로 수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문의전화량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미루면서 웨딩·여행업계 울상=웨딩업계의 봄철 웨딩 성수기는 3월부터 6월 사이이지만 윤달 사이이지만 윤달을 피해서 결혼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가을철 예식 예약이 11월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웨딩전문업체 ‘웨디안’ 관계자는 “윤달을 피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21일부터 5월 24일 사이에는 예식일정이 거의 없다”며 “대신 6월과 9~11월 사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상담을 하러 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 예식장들도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2~4월에 결혼식이 많이 치러졌으며 5월 예식은 평년에 비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웨딩센터 상담고객이 많이 줄었다”며 “봄 정기세일 기간에 맞춰 가전·가구 박람회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4월 들어 가전·가구의 매출이 소폭 줄었다”고 말했다.

한복시장도 썰렁하다. 한복대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올 봄 장사는 포기했다”며 “윤달 이후 가을 혼수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윤달=음력에서 평년의 12개월에 1개월이 더 태어난 달.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의 경우 태양력과 매년 11일의 오차가 생기고 실제 계절과 간극도 벌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2~3년마다 한 번씩 넣은 달을 말한다.



세계로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아시아·화중·아동·관광' 투자설명회. 18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수도권 소재 8개 문화기업과 600여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軍 공항 이전 길 열렸다

여야 24일 본회의 '특별법' 통과 합의

여야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제18대 국회 마지막 임시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오전 '군(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이날 오후 곧바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24일 열릴 본 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8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

망이다. 특별법 이전 대상에는 광주를 비롯한 대구·수원·청주·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법'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방개혁안은 내팽개쳐두고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민원 법안만 처리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원유철(새누리당) 국방위원장에게 상정을 보류했다.

'군 공항 이전법'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공군 비행장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

할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새 공항 건설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지자체 등이 지역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국방부는 종전 공항부지를 이들 지자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광주 군 비행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총무 김동철(광주 광산구)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kzi@kwangju.co.kr>



18일 여수시 중화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시민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한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과 김충석 여수시장, 장재익 여수교육장 등 2500여명이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여수시청 제공>

여수세계박람회 D-23

성공개최 시민 한마음 전진대회

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5월12일~8월12일)'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관람객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18일 중화동 이순신광장(구 해양공원)에서 김충석 시장과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 장재익 교육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박람회 기간 승용차 안타기, 청결·질서·친절·봉사 등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실천을 다짐하고 박람회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 음·문·동 출정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박람회 영상 상영, 소망편지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관람객들을 응대하는 유관 단체 대표들은 박람회 성공 개최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 실천, 숙박요금 안정화,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중소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3대 행사인 세계박람회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 박람회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김대성 여수시박람회준비위원장도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미항 여수’, ‘국제해양관광레저스포츠수도 여수’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바가지 숙박업소 퇴출한다

조직위, 22개 호텔·모텔 모니터링 5개소 적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 기간 바가지 요금을 받는 호텔과 모텔 등은 박람회 지정 숙박업소에서 제외된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18일 “박람회 지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식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소들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을 요구한 뒤 재확인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한 뒤 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에 게시하고, 상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대응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또 최근 여수지역의 관광호텔, 모텔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공식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2개 업소와 예약을 거부한 3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했다.

한편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중에도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을 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에 게시하고, 상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기 직구동 버스 영광 생산공장 완공

영광에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직구동시스템(모터가 바로 바퀴를 돌리는 것) 생산라인이 들어섰다.

전남도는 18일 “쥘에코네스가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 직구동 버스 생산 1공장을 완공해 이날이 낀 국회의원, 전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밝혔다.

에코네스는 이 공장에서 500명을 고용해 전기 직구동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이다. 에코네스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부지인 영광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서 모두 8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선보인 버스 생산 공장은 1단계 사업으로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19代부터
날치기 몸자름
없어진다
성숙방법
의원직박탈

이것도 해결쯤 하고 가지

소변보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대상자**
- 45세 이상 연령의 남성
- 현재 하루날(Harunal)과 같은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 연구 시험 기간**
- 최대 5개월
- 참여 이익**
- 본 시험에 참여하시므로써 받게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합리적인 교통비를 지급 받게 되십니다.
- 본 연구 시험의 목적**
- 이 시험은 시험용 약물이 BPH(전립선비대증)증상 치료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참여 병원**
-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및 근무 시간 | 010-5159-4210 | 평일 9시~6시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한도 - 300~7000만원
-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 (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금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포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 (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권)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이나라 노인을 위한 건강도서

복지관 도서실, 노인정 도서실-노인건강 필수도서

1 18,000원	2 12,900원	3 12,000원	4 15,000원	5 15,000원	6 15,000원
7 12,000원	8 12,000원	9 12,000원	10 12,000원	11 15,000원	12 13권 15,000원/2권 14,000원

※천금출판사 (책 만들어 드립니다) 1~12 합계 192,900원

건강에 좋은 도서 보금돈의

천금건강

☎ 053)746-7733,746-7734 / Fax 053)746-7735
문의는 010-5050-7333 / 신한은행 : 110-314-278685 임보미